

「濟州島實紀」序·序文 解題

1992년 1월 10일부터 2주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하던 중 金斗奉씨의 遺稿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 遺稿속에는 金斗奉씨의 「濟州島實紀」에 春園 李光洙와 六堂 崔南善 兩人이 쓴 肉筆原稿 序文이 있었다. 올해가 매다침 春園 李光洙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이 肉筆原稿를 공개하기로 한다. 六堂과 春園의 文體上의 비교는 물론 六堂 春園 兩人이 당시 제주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序 文

濟州는 다만 傳說의 鄉일 뿐 아니라 文化的으로 朝鮮에서 特殊한 地位를 가진 곳이다. 古來로 여러 名士가 이 땅에 流配되었던 것과 濟州人의 知力이 卓出함과 아울러서 濟州에는 朝鮮의 文化가 本土에서 보다는 많이 保存된 것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風土와 植物帶의 特殊性이 우리의 興味를 많이 끌고 더구나 이 地方의 傳說과 民謠에는 實로 우리에게 無限한 回顧와 刺戟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러한 데 至今토록 이러한 濟州는 充分히 紹介되지 못 하여서 朝鮮本土人에게도 一種의 神祕境과 같았다.

더구나 近年에 이르러 濟州島는 軍事的으로 產業的으로도 重要性을 加하게 되어서 濟州島를 알고저하는 熱望은 内外에 일어나게 되었다. 金斗奉氏의 著 「濟州島實記」는 實로 이 要求에 應한 것으로서 昭和七年에 刊行함으로 부터 이미 四版을 거듭하였다. 耽羅誌를 基礎로 하여 地理, 歷史, 風俗, 人物, 風景, 傳說, 產業狀況 등을 評叙하고 古來各流의 記詩 등을 收錄하였다. 名物인

濟州民謠를 除外하였음이 甚히 遺憾이어나와 本書中에 있는 風俗, 人物, 傳說, 記, 詩단 하여도 萬人에게 다 興味를 줄 것으로서 再讀三讀할 價値가 있다 고 믿는다.

著者金斗奉氏는 濟州의 士人으로서 本書의 著述刊行으로 卍 己任을 삼는 그러한 熱誠있는 濟州研究者다. 이제 本書第5版과 國語版을 發行함에 際하여 余에게 序를 求하기로 스스로 그 適材 아닌 줄을 아나 敢히 一言으로 識하는 바다.

昭和巳卯之春 春園 李 光 洙

濟州島實紀序*

耽羅의 開闢이 濟麗로 더부러 古를 다토고 中世에 잇서서는 蒙古의 餘勢와 近世에 잇서서는 遠西의 邊潮가 그세마다 一段의 異色을 來添하니 그 歷史的 興味の 豐饒함이 海島임으로써 輕타할 바 | 아니언마는 惜乎라 文獻의 微할 것이 적어 부즈럽시 瀛洲의 幻影으로 하여금 海上에 縹渺케 할 뿐이얏다. 金君斗奉은 본대 牙籌의 士로서 事에 因하여 島故의 茫然함을 深慨하여 苦心한 지 多年에 搜한 바 遺文과 發한 바 秘蹟이 居然히 箱篋에 盈溢하매 무릇 島에 來游하는 人士로서 形勢와 沿革을 君의 簡編에 來徵하는 者 | 날로 만코 혹 그것을 手民에 부쳐 一世에 普饗함을 勸하여 말지 아니 하며 予도일즉 島에 이르매 君의 指數를 請할 것이 一二에 그치지 아니 하였다. 後數年에 君이 駱山의 一覽閣을 過訪하여 精印雅裝한 一冊子를 出示하니 顔호대 濟州島實紀라 한 것이라 가로대 此編이 이에 이르기까지의 苦心은 오죽 予 | 아나니 시러금 一言으로써 弁卷치 못하겠는가 하며 爾來로 版을 거듭하는 족족 그 嚮함이 더욱

* 표기는 原文에 따랐으며, 띄어쓰기는 現代의 맞춤법에 맞게 고쳤음.

濟州島實紀序

篤切한데 身邊이 空虛하야 매양 至情을 孤負치 아니치 못하더니 項에 다시 來
懇하야 가로대 島實紀 | 巴야흐로 五刊에 際하얏스니 宿約을 어찌하려느냐 함
에는 다시 推諉할 말을 엇지 못하얏다. 생각컨대 此書 | 一出하매 世의 歡迎
이 翕然하야 需要 | 日段함은 그 價値를 自證하기에 足하며 또 産業, 軍事 其
他 諸方面으로 부터 島의 重要性이 經世家의 再檢討 再確認을 재촉하기 이미
여러번인 즉 此書의 必要 | 또한 이에 準함이 毋論일지니 이제 予 | 다시 무
슨 蛇足を 더하리오마는 強히 一言을 부칠진대 遠古는 그만두고 高麗以降으로
도 島人士의 文學으로써 鳴世한 者 | 代로 其人이 잇고 그네의 編摩에 일운
方志의 書 | 全無한 바 | 아니로대 島故를 明徵하기에 足한 志乘이 도리쳐 金
君의 手를 비러 修纂되고 아울러 遠近에 廣播하야 天下 | 島에 對한 耳目을
고치게 되얏슴은 첫째 濟州及濟州人이 永遠히 그 勞를 念謝치 아니치 못하리
라 함을 말하고 십다. 金君이 본대 學者 | 아니오 또 鉛槧이 그 所長이아닌 즉
그 取材와 立例와 乃至 行文에 다 可議할 者 | 만흔은 또한 어찌 할 수 업는
일이다. 그러나 君의 誠意와 魄力이 이미 無中에서 此書를 有케 한 것처럼 今
後로 더욱 尺步 咫進을 繼續하야 만드시 此書로 하야곰 十全의 域에 다닷케
하고야 말 것을 주는 確信하며 일변 君의 此書를 導線으로 하야 專家의 大著
가 踵을 이어 나와서 文獻濟州의 面目이 朝鮮의 全域에서 가장 光大하야지기를
못내 못내 切祝한다. 이를 적어 君에게 돌려 보낸다.

己卯 一月 二十六日 六堂 崔南善